

# '술값·식사비 대납 의혹' 사실관계 공방전

### 민주 도지사 경선 후보들, 동일 사안 두고 정반대 입장 안호영 의원 "즉각적인 재검찰... 경선도 중단해야" 이원택 의원 "당시 상황 검증 가능... 필요시 강력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원택 의원의 '술값·식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경선 경쟁자인 안호영 의원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양측은 동일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으며 사실관계 공방을 이어가는 동시에, 중앙당의 감찰과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후보의 대납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검찰과 경선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제기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청년 간담회 성격과 개최 경위다. 이원택 의원은 해당 간담회가 "청년

들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자리이며, 자신이 요청하거나 주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으나, 안 의원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참석 청년 당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원택 의원이 요청한 자리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간담회가 사실상 이 의원 측 의중에 따라 추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김슬지 도의원이 청년들에게 연락하며 "이원택 의원이 청년들과 소통을 원한다"는 취지로 참석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간담회가 이 의원 요청에 따라 조직됐다는 정황"으로 해석했다.

둘째, 간담회 중 이석 여부다. 이원택 의원은 "간담회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은 "참석자들이 식사 이후 저녁 8시경 이 의원과 셀카 및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증언은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며 "해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추가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앙당 즉각 재검찰 △재검찰 결과 발표 전까지 경선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우선 간담회 개최 경위에 대해 "지역 청년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보좌진이 일정을 조율한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요청하거나 주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 요청 과정에서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는 이미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자신과의 일정만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모임이 특정 지지세

결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과의 정책 논의 및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일부 참석자들이 다른 후보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 때문에 간담회 도중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이석 직전 참석자 요청으로 식당 외부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 이후 곧바로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은 SNS 게시물과 언론 보도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검증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CCTV 복원 및 공개 필요 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포함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안호영 의원 역시 "참석자 증언과 언론 보도로 추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감찰 및 조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 모두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안호영 의원을 향해 공개 질의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안호영 의원 역시 유사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언론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이유 등이다.

이 의원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검증을 넘어선 흑백논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 측은 "핵심은 의혹의 실제 규명"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 의혹을 넘어 △경선 공정성 △후보 검증 방식 △당 차원의 대응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이 재검찰 요구를 수용할지, 또는 경선 일정을 유지할지에 따라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감찰 결과나 수사 여부가 후보 간 유불리를 가를 핵심 변수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지사 출마' 민주 이원택 의원 "가짜뉴스 공세에 단호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이원택 후보가 최근 제기된 '식사비 대납' 및 '지지 유세'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9일 밝혔다.

해당 의혹을 "가짜뉴스이자 정치적 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의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허위사실 공포"라며 "경선을 흔들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사안은 △해당 모임이 지지 유세였다는 주장 △식사비 대납 및 결제 기록 미준재 의혹 등 두 가지다.

먼저 지지 유세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해당 일정은 주최 측 초청으로 참석한 자리였으며, 참석자 대부분이 초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일정 지연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요청에 따라 늦게 도착해 간단한 인사와 정책 설명, 질의응답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상 허용된 발로 하는 선거운동 수준의 발인 이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며 "이를 불법적 지지 유세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는 "당시 식사를 하지 않았고, 도착 시점에 대부분 식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며 "결제 과정에 관여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납'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 김윤덕 국토부장관 전면 개혁의지 밝혀 도로공사 강력 질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공정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휴게소 운영업체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점 상인들은 물품 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 및 시설비 부담 청구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 구조적 병폐가 누적돼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휴게소 운영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근본적인 조치 없이 방치해 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며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내부 반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운

영업체와 입점 상인 간 불공정 행위는 물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문제까지 포함해 전면 조사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테스트를 가동해 중간 운영업체를 배제하는 방식 등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물품대금 미지급 등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 정치, 선택·정책·책임 실종"

###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경제·문화·복지·올림픽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약 구상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성수 예비후보가 전북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후보는 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수십 년간 민주당을 지켜온 지역이지만, 현재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정치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구조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전북에서 잊어진 것은 '선택·정책·책임' 세 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의 부재'와 관련해 김 후보는 "위에서 정해준다면 도민은 따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군산 보궐선거에서의 전라공천이나 도지사 선거에서 인물 역량이 아닌 '라인' 중심의 선택은 강요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책 부재"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채만금을 외치지만 정작 전북이 산업융지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역시 지역 자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책 경쟁이 아닌 공허한 공약 정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책임 구조'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정치 생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권력 핵심에 대한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책임이 아니라 통제

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재 전북 정치는 선택은 위에서 강요되고, 정책은 사라졌으며, 책임은 아래로만 흐르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치권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책임은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권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북을 민주당을 실려온 지역이지만, 이제는 그 정치 구조가 오히려 전북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특정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전북 정치 구조를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선택이 살아있는 정치, 정책이 경쟁하는 전북, 책임이 위로 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정치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우병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서울 KTX 직선화할 것"



우병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서울 KTX 직선화를 핵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민선 9기 시장 임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 예비후보는 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경제·문화·복지·올림픽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약 구상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민선 8기 핵심 사업 30개를 확대 재편하고, 70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총 10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만호 기자

## 김관영 도지사·안호영 의원, 전북 현안 협력 의지 재확인

### 전북도청 앞에서 조우



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현관 앞에서 만난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9일 오전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연히 마주치며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예정되지 않았던 '깜짝 조우'였지만, 두 사람은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안 의원은 도청을 방문하던 중, 원주 피지컬 AI 실증단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김 지사와 현관 입구에서 마주쳤으며 김 도지사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를 대신한 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환담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최근 범인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김 지사를 향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담하고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도민만 바라보면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바란다"고 말하며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도청에 더욱 집중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감사를 표하며, "완주에서 추진 중인 중앙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둘러보고 오는 길"이라며 "로봇과 제조가 결합된 미래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이만호 기자

아울러 김 지사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청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도 강조했다. 밝히며 적극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짧은 만남을 마친 뒤 안 의원은 "주요 현안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정치 바꾸고 새로운 미래 열겠다"

### 진보당 백승재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전 돌입

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후보가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백 후보는 앞서 지난 3월 17일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3월 25일 당내 선출 선거를 통해 진보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그는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 3월부터 8일까지 6일간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시대 및 불꽃'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전북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농성은 최근 불거진 '현금 살포' 금권선거 의혹과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백 후보는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무너진 전북 정치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였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 이후 그는 "민주당 일당독점의 벽을 허물고 경제와 감시가 살아날 때 비로소 전북 정치가 숨을 쉴 수 있다"며 "구태와 부패 정치를 청산하고 전북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백 후보는 그동안 진행해온 파병 반대 1인 시위 등 활동을 언급하며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정치가 도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 진로 진학센터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9일 젊은 학부모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육 명당' 임실을 만들기 위한 핵심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한 예비후보는 진로진학센터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상담실과 강의실, 정보검색실 등을 갖추고, 전문 진로진학 컨설턴트를 배치해 초·중·고 전 단계에 걸친 진로 탐색과 진학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 에듀 페스티벌'은 매년 1회, 3일간 개최되는 지역 교육 공동체 축제로 운영된다. /이만호 기자